

# 정진욱·정준호·조계원 당선자, 민주당 원내대표단 입성

(광주 동남갑)

(광주 북갑)

(전남 여수을)

### 박찬대 원내대표 22명 인선 발표...“개혁기동대 역할할 것”

#### 정진욱 원내대표 비서실장, 정준호·조계원 원내 부대표 선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7일 새 원내대표단에 노종면·강유정·윤종균 당선인을, 원내대표 비서실장에 정진욱(광주 동남갑) 당선인을 선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했다.

노 원내대표는 YTN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이번 총선에서 인천 부평갑에 전락공천을 받았고, 문학·영화 평론가 출신인 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9번으로 당선됐다.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당시 경기도 정무수석으로 일한 바 있으며 이번 총선에서는 경기 안성에서 출마해 당선됐다.

강 원내대표는 인선 발표 직후 “개혁의 연료, 개혁의 윤활유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고, 윤 원내대표는 “22대 국회는 국민의 분노를 담은 그릇이 되어야 한다. 원내대표단이 정권교체의 병참기지,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박상인 당선인을 필두로 박민규·김남희·안태준·김용만·부승찬·모경중·송재봉·정준호(광주 북구갑)·조계원(여수을)·김대선·정을호·임광현·백승아·서미화 당선인 등 15명이 부대표단으로 선임됐다.

이로써 박 원내대표는 앞서 발표된 박성준·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22명의 원내대표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정진욱 당선자

정준호 당선자

조계원 당선자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를 맞아 새로운 각오를 다지자는 취지에서 특별히 22명의 대표단을 구축한 것”이라며 “저는 원내대표단에 개혁기동대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이름답게 개혁에 앞장서고 과감하게 돌파하는 대표단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비서실장은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원내대표를 성실하게 보좌하면서 원내대표와 당 의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의 통로와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우고, 도탄에 빠진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개혁기동대 22인의 일원으로 무능한 윤석열정권을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개혁과제 실천을 위해 발로 뛰겠다”면서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는 주민들의 요구와 바람에 즉각 응답하는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법안 처리율 36.6%...21대 국회 입법 성적 최악

### 정쟁 속 민생 외면...비쟁점법 등 1만6000여건 폐기 수순

임기 만료를 3주 가량 앞둔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입법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2만5830건 중 9455건이 처리돼 법안 처리율이 36.60%에 그쳤다.

여야가 여소야대 지형 속 정쟁만 되풀이하면서 국회 본연의 업무인 입법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21대 국회는 여야가 극한 대치로 정쟁을 일상화하면서 미래산업 기반 마련과 규제 개선 등을 위해 처리가 시급한 주요 민생 법안들까지 장기간 발목을 잡아 각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21대 국회 임기 막판 해외 출장에는 뜻을 같이해 빈축을 샀다.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보다도 낮은 법안 처리율을 보였다. 오는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다수의 법안을 처리한다

해도 20대 국회보다 저조한 법안 처리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20대 국회에서는 발의된 2만4141건의 법안 중 1만5002건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철회 등 포함)은 37.9%로, 19대 국회의 45.0%보다 낮았다.

여야가 극한의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가적으로 시급하거나 민생에 직결된 법안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1대 국회 내 내 정쟁에만 몰두하다 보니 이견이 작은 비쟁점 법안까지 줄줄이 폐기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여야가 처리하기로 공감대까지 형성한 ‘고준위 방패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패물법)은 여야 대치 속 표류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2년 넘게 계류 중인 고준위방패물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2031년 한빛·고리 원전 등의 가동까지 중단

될 수 있다.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산자위에 계류돼있고,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이후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판사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관증원법 개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21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AI(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규제 내용이 담긴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과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0.5%)의 적용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있다.

불법 투자리딩방 등 신종사기 대응을 위한 사기방지기본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국회의장 후보 최대 ‘5파전’

### 조정식·우원식 후보 등록, 박지원도 출마 무계...16일 선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우원식 의원이 7일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 후보로 나란히 등록했다.

당 선관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은 뒤 오는 16일 경선을 치른다.

조 의원과 우 의원은 4·10 총선에서 각각 6선, 5선 고지에 올랐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장과 예결위 간사, 당 정책위의장 및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실력을 검증받았다”며 “특히 지난 1년 8개월간 당 사무총장으로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지키고 총선 승리를 이끄는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총선의 민의는 민생 회복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과 경제를 제대로 하라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해야 할 일을 과감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 의원의 불신임 시 의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국회의장 중립행가제’를 공약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출마

선언을 하며 선거운동 슬로건으로 ‘개혁은 단호하게, 민생은 유능하게 성과 내는 국회를 만들 책임 의장’을 내세웠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첫 원내대표로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했듯, (아내의) 부족한 8석의 한계를 넘어서겠다”며 “원칙과 노선을 잃지 않으면서 유능하게 국회를 운영하는 정치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실천적 사회개혁 노선에 동의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 경선 선대위원장직을 맡았다”며 본인이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라는 점을 부쩍 강조했다.

일단 조정식·우원식 의원이 후보 등록을 마친 가운데 당내 국회의장 경선은 최대 5파전으로 흐를 전망이다.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정성호 의원에 이어 ‘외장 도전’을 고심해 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출마 쪽으로 기울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총선에서 추 전 장관은 6선, 정 의원은 박 전 원장은 나란히 5선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 국힘, 5·18 44주년 기념식 대거 참석

### 광주서 현장 워크숍 등 추가 일정

국민의힘이 오는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에 광주를 방문한다.

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광주 지도부는 18일 오전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

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22대 국회 당선자들도 동행해 총 100여명이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 소속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광주에서 별도의 현장 워크숍을 연다. 지도부는 기념식 참석 후 5·

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원외 위원장들과 간담회 등 추가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 광주행으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하게 된다.

2022년 기념식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에게 가까운 100여명이 참석했고, 지난해 행사에는 90여명이 광주행 열차에 탑승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